광산구 '지역서점 인증제', 광주 전역으로 확대

7월 중 인증서점 최종 선정…인증 현판 부착·공공도서 우선 구매 혜택
광주시, 참여형일자리 '광산시민수당'→'시민참여수당'으로 도입 추진

광주 광산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다양한 혁신 정책들이 광주 전역으로 무대를 넓히고 있다.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낸 광산의 성공 사례 중 일부는 광주시 정책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에서 유일하게 광산구가 시행해 온 '지역 서점 인증제'가 올해 광주 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됐다.

광산구는 2019년부터 지역서점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온라인 서점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네 작은 서점의 입지를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를 돕는 게 핵심이다.

광산구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영업하는 서점 중 서적의 전시·판매 면적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광산구가 인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광산구는 특히 '광산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인증한 지역서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증 현판 부착, 공공도서 우선 구매 등이 대표 혜택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광산구 인증 서점은 총 22곳이다. 광산구는 2020년부터 매년 공공도서의 80~90%를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고 있다. 이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판로를 고민하는 동네 서점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또 지역서점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자생적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경영 위기에 빠진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광산구의 지역서점 인증제를 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광주시 관련 조례에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지난 5월 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7월 중 인증 서점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교부하고, 공공기관 도서 구입 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광산구 인증제의 기본 틀에 더해 자치구별 홍보와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참여형 일자리 모델인 '광산시민수당'도 광주시 정책의 모태가 됐다. 민선 8기 광주시는 '3대 공익수당' 중 하나로 시민참여수당을 도입해 추진중이다.

광산시민수당은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이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공공부문 활동과 연계해 재능과 능력이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도 총 9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해소하고, 고용 중심의 일자리 패러다임을 참여 중심으로 전환한 시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서비스인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맺고, 광산시민수당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에도 시동을 걸었다.

광산구가 인증한 '지역서점' 중 한 곳으로,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민을 위한 자생적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시민참여수당은 광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나선 시민의 활동 가치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광산시민수당을 한 단계 발전시킨 모델이라는 평가 등이 나온다.

광산구는 앞으로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혁신 정책 발굴·시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등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비롯한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광산을 위한 명품길 조성, 광주송정역 활성화 등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는 늘 한 발 먼저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실질적으로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 정책을 선도해 왔다"며 "축적된 성과와 시민의 자치역량을 발판 삼아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가동해 광산의 새로운 변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1인 청년 지원 '나 잇수다'

광산구, 참여자 160명 모집

광주 광산구는 "1인 청년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나 잇수다' 사업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광산구 내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만 19~39세)으로, 우리 집 넓히기 공간정리(40명), 건강 체크(60명), 마음 두드림 심리검사(60명) 등 세 가지 프로그램에서 총 160명을 모집한다.

우리 집 넓히기 공간정리는 광산구 내 원룸에 전·월세 임차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이 주거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정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건강 체크는 광산구 보건소를 통해 체성분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 및 연계 지원한다. 마음 두드림 심리검사는 총 8개 심리검사 중 청년이 원하는 2종을 선택한다. 심리검사 후 1대1 해석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5일부터 선착순 모집 중이다. 프로그램별 인원이 충족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누리집 '새소식'이나 광산구 시민경제과 청년활력팀(062-960-3873)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홀로 사는 청년이 자신을 알아가고, 이해하며 정서적 안정을 얻고 꿈을 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착한가격업소' 확대

50개소 지정 상하수도 요금 등 지원

광주 광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50개소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광산구 관내 외식업체,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가게별 주요 품목 가격이 지역 평균 이하이며 서비스·위생 등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32개소를 지정했다.

올해는 신규 국비 등 지원 예산을 늘려 착한가격업소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달 말 기존 지정 업소 및 신규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총 50개소를 지정했으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지원, 종량제 봉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은 광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노력을 알리고, 지역상권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태풍·집중호우' 제방 붕괴 상황별 대응 훈련

광산구,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사전 점검·정비 강화

광주 광산구는 "최근 오운 1저수지에서 저수지 제방 붕괴 등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한 '2023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이번 훈련에는 광산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저수지 구조물 파손 및 제방이 일부 붕괴되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지역주민 대피, 제방 응급복구 등 상황별 위기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와 더불어 지속적인 훈련으로 재난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이번 훈련 외에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수리시설 수해 예방대책을 사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장마시즌 이전까지 관내 저수지, 건설공사 현장 등 수리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이용빈 의원, '신흥동 톺아보기' 현장간담회

신흥동행정복지센터 노후화·하수관거·쓰레기 방치 등 점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최근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신흥동 톺아보기'를 진행하고, 지역 현안 이슈와 생활 민원 등을 점검했다. 〈사진〉

이번 신흥동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신흥동행정복지센터 노후화 및 주민이용 공간 협소에 따른 신축 또는 개축 ▲신흥동 하수관거·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송정 IC 고가 밑 쓰레기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문 및 CCTV 설치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내 공유 주방 설치 등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간담회에서 신흥동 지역 내 엄지빌라~송정고가~말미산 입구 구간까지 주민들과 함께 둘러보고 다양한 민원을 청취했다.

이용빈 의원은 "민원사항들을 잘 검토해 사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로 새로운 도약의 시작점에 있는 신흥동이 힘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현장 맞춤형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